

선재동자는 다시 남쪽으로 가서 수나(輸那)라고 하는 나라의 가릉가(伽陵迦) 숲의 성(城)에 이르러 사자빈신비구니(獅子頻申比丘尼)를 찾아 보았다. 그 비구니가 승광왕(勝光王)이 보시한 일광(日光)동산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동산에 가서 두루 살펴 보았다.

그 동산에는 가지 가지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울창하고, 냇물과 샘과 못에는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한량없는 보배나무가 줄을 지어 늘어져 있고 나무 밑에는 사자좌가 놓여 있었다. 그 동산의 여러가지 훌륭한 풍광과 아름다운 장엄은 마치 하늘나라의 궁전과 같았다.

이 때 선재동자는 사자빈신비구니가 모든 보배나무 아래 놓인 사자좌에 두루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날날 사자좌에 모인 대중도 같지 않고 말하는 법문도 각각 달랐다. 사자빈신비구니는 그들의 욕망과 이해함이 서로 다른 차별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고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 이 비구니가 (1) 넓은 눈으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본다(善眼捨得)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2) 일체의 불법을 실천한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3) 법계의 여러가지 차별을 밝힌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4) 모든 장애의 바퀴를 없앤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5) 모든 중생에게 착한 마음을 내게 한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6) 훌륭한 장엄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7) 장애가 없는 진실함에 갈무리한다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8) 법계의 모든 영역(법계) 단다라, 法界圓滿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9) 마음의 보배 곳집(心藏)이라고 하는 반야



사자빈신비구니의 법문

## 분별없이 지혜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 서원에 의한 삼매가 중생 교화의 중심

바라밀문, (10) 두루 널리 기쁨을 출생시키는 곳집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문 등의 열 가지 반야바라밀문을 머리로 삼아 수 없는 백만 반야바라밀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사자빈신비구니의 이러한 경계를 보고 또 부사의한 법문을 듣고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서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비구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는데,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에 삼세(三世)의 모든 법의 장애를 두루 나타내게 한다. 나는 이 지혜의 광명 때문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내는 삼매왕(三昧王)을 얻었고, 이 삼매로 인하여 뜻대로 태

어나는 몸을 얻게 되어 사방 모든 세계의 도솔천궁에 있는 일생보처보살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날날 보살의 앞에서 불가설세계의 티끌 수 몸을 나타내고 날날 몸으로 불가설세계의 티끌수 공양을 하였다.

어떤 중생이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 줄을 아는 이는 모두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았으며, 어떤 중생이든 나에게 오면 나는 반야바라밀다를 말하여 주었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지혜눈으로 보는 까닭이다. 모든 말을 들어도 말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마음에 집착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여래를 봐어도 여래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법의 몸(法身)에 대해서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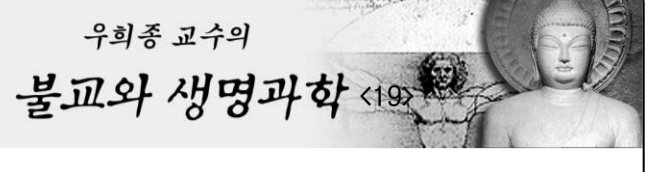
달한 까닭이다. 모든 법문을 머물러 가지면 서도 법륜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법의 성품을 깨달은 까닭이다.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았으니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이다.”

사자빈신비구니가 설하고 있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 법문은 반야의 지혜와 커다란 원(願)에 의한 삼매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비구니가 일체 세계의 다양한 중생들의 욕망과 이해력이 제각기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각기 알맞은 법을 설하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구니가 일체의 분별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야의 입장을 근본으로 하여 열 가지 반야바라밀을 으뜸으로 삼는 설 수도 없는 반야바라밀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수한 반야바라밀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일체지(一切智)를 성취하는 일이다. 반야의 지혜 광명은 일심(一心)의 순간에 모든 법의 장애를 두루 나타내게 하는 여러가지의 삼매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을 공양한다고 하는 것도 반야의 지혜에 근거를 두고 지극한 원(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한 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여러 가지의 삼매인 것이다. 사자빈신비구니가 시방세계에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장애가 없이 적극적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은 반야의 지혜와 여래를 고양하려는 대원(大願)에 의한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산을 든 인간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하여 고통을 피해 안락함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동물들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솔직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많아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고득락(離苦得樂)의 부처님 말씀을 배우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혹은 신심이 좋아 여러 법회에도 잘 참석하시면서 그 누가 보아도 정찬이 자자한 분들 중에도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남 보기에 정찬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였기에 주위의 힘들어하는 타인에 게 부처님 말씀으로 좋은 조언도 하면서 스스로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산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정작 자신의 문제가 생

이 있을까. 무릇 상이라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허망한 것이기에 상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다른 경전 읽을 것도 없다. 그렇기에 누가 물으면 부처님 법이 좋다면 정말 그럴까하게 이치를 설명해 주면서도, 정작 가족의 행복이나 주위에 대한 배려 없이 도(道)를 구한 나머지 유명 법회나 잠깐 모임 등을 찾아다니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부류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그저 금강경 사구계 중의 한구절만이라도 자기화하기 위하여 기도, 열불, 혹은 참선 등으로 부단히 노력하지는 않고 밖으로만 구하니 어찌 평생 헛고생만 하지 않을 수가.

## 진리는 자기화 못하면 지식으로만 존재 우산을 놓고 온몸으로 ‘법의 비’를 맞으라

기거나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변해서 힘든 문제가 닥치면 어찌할 줄 모르거나 매우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으로는 고통 속에 지내는 경우도 본다. 이것은 결국 많은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이치로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진심으로 부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자기화가 되지 못한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은 내게는 아무 도움 되지 못하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화가 되지 못한 채 겉모양만 불제자라면 여전히 남의 장단에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불제자로서 금강경의 ‘법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한 구절의 뜻을 모르는

그러한 이들은 종종 가랑비에 서서히 옷 적시기 위해 다닌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한다. 그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기화를 위한 노력 없이 여러 법회나 모임에 억겁을 다닌다 해도 결코 옷은 적셔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 내리는 곳을 찾아 다닌다 해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기에 자기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우산을 내려놓는 격이니 우산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단 한방울의 빗물로도 그대는 완전히 젖을 것이다.

그대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디서 비가 많이 내리느냐 안내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법계가 아무런 대가없이 내리는 유정, 무정의 법우(法雨)로 그대 몸이 그대로 젖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 그대의 우산을 내려놓아야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르니 하는 말이지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여기에서 무아와 무상의 이치를 어느나 모르느냐 하는 것은 그 이치를 온몸으로 살아 가느냐 못하느냐는 뜻이지, 머리로 어느나 아니냐는 정도를 문제삼는 게 아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요”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았으니 일단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도 속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한다.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으로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안 되고 그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바로 당신이 그대로 부처님이요”라고 일러주면 속으로는 “앞으로 성불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안다”는 정도로는 안 되고 견(見), 즉 ‘보라’고 한 것이다. 견성(見性),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본다’는 것은 자기화 본래 부처라는 정체를 온전하게 확인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불(成佛)이란 부처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처 부처됨을 확인 할 뿐이라는 뜻이다.

“나는 무아니 무상이니 하는 얘기는 술하게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

■유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 종교학



## 선의 세계 16 견성성불(見性成佛)-4

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 역의 합을 거론한다. 성(聖)과 속(俗)이라든가 조물주(造物主)와 피조물(被造物) 등 대척(對峙)되는 양극이 함께 함으로써 종교라는 현상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한 역의 동반 내지 역의 합이 종교의 사상과 신행에 주요한 모티브

삼아간다는 데 중생의 문제가 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무명이라 하면 ‘밝지 못하다’ ‘보지 못한다’는 뜻이니, 인생과 사물의 진상을 모른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알아야 할 인생과 사물의 진상이 뭐냐? 불교 교리에서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답이 되

## 무명에만 의지한 삶이 문제

로 작동한다. 각(覺)과 불각(不覺), 부처(깨달은 이)와 중생(못 깨달은 이)도 그러한 양극의 관계이다. 그리고 중생이 이미 부처라고 하는 얘기가, 불각인 듯해도 실상은 모두 본래 깨쳐있다고 하는 본각 개념은 그 양극의 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부처라는 쪽은 내버려둔 채 무명만 발동시키고 무명에만 의지하며

는 것은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이다. 무상이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하며 생겨났다 없어지곤 한다는 뜻이고, 무아란 그러므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아(我)라고 할 만한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혹자는 “나는 무아니 무상이니 하는 얘기는 술하게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선천성 생체 신후비랑 낭 습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신성)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영험량

## 영험도량

픽미승 예언

###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 해원사

조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 불자의 금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시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 사 장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 · 전남일원	이준엽	062)373-8813 / 011-9644-3536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구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 호남지사(전남 · 광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